

■ 업체탐방 / 成美電子株式會社



〈회사개요〉

상 호 : 成美電子(株)
 대표이사 : 俞 台 老
 본사 · 공장 : 경기도 안양시 박달동
 621-3
 주생산품목 : Digital PCM반송
 장치, Digital Data 전송장치
 광섬유 Connector, Cord,
 FDM 반송장치 등
 설 립 일 : 1980. 5. 10



代 表 理 事
 俞 台 老

정보통신기기 전문생산업체

안양시 박달동에 위치한 成美電子(株), 남다른 기술투자, 완벽한 제품생산 및 종업원 복지 후생 이룬바 모범회사의 3 박자를 갖춘 중견업체이다.

'80년 5월에 창립, 10여년이 지난 오늘 종업원 250명, '90년도 총매출액 154억원을 기록, 해마다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同社는 외형상 연

구소를 연상케하는 깨끗한 시설과 전직원의 단결된 모습으로 2000년대를 개척해 가고 있었다.

완벽한 제품생산을 목표로

同社는 창립후 4년이 지난 '84년 유망중소기업으로 (KTDC) 지정됐으며, '86년에는 기업부설연구소를 개설하였다. 이어 '89년에는 노동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同社의 주생산품목으로는

• Digital PCM반송장치 • Digital Microwave Radio장치 • Digital Data 전송장치 • 광섬유 Connector • Cord 등으로 정보통신 산업에서는 필수적인 장비들로서 그 생산량의 많은 부분을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전력공사, 철도청 및 국방부에 납품하고 있다.

한편 해외수출대상국으로는 美國의 DMC를 비롯, 日本의 富士通은 물론 中南美, 中國 등에 자체브랜드로 수출하고 있는데 앞으로 세계 각국으로 수출량의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신제품은 항상 자체개발을 자랑

成美電子(株)의 빼놓을 수 없는 자랑거리의

■ 업체탐방 / 成美電子株式會社

하나의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신제품의 자체 개발이다. 해마다 매출액의 10% 이상을 신제품 개발에 투자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50여명에 불과한 소규모 기업부설연구소에서 '83년 이래 자체개발한 신제품의 수는 현재 50여건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근래 들어 외국과의 경쟁에서 뒤지는 가장 큰 이유로 많은 전문가나 업계의 인사들이 말하는 신제품 개발능력 부족 및 기술개발자금 투자에 대한 미흡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成美電子(株)에는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同社는 관주도형 주문생산으로는 한계성이 있다고 판단, 새로운 제품으로서의 기업확장을 꾀하고 있다.

환경가전사업본부 신설

정보통신산업의 하이웨이를 실현한 同社는 순수한 자연과 첨단기술 산업의 접목으로 건강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실현하기 위한 의지의 일환으로 환경가전사업본부를 신설하고 사업확장의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본부 설립후 제품으로는 20세기 전자산업의 결정, 불꽃없는 신비의 조리기인 EDDY를, 실내온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소음으로 공기만을 집진 → 탈취 → 음이온산소로 교환할 수 있는 Clearveil을 출하, 시장에서의 우위확보를 겨냥

하고 있다.

俞台老 代表理事는 “앞으로는 식수와 폐수정화장치 등 우리 생활에 가장 밀접한 공기와 물 등 환경개선을 위한 제품개발에 주력하여 건강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실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격주 5일제 근무 도입

인적자원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87년부터 成美電子는 회사측에서 먼저 방침을 결정, 제조업체로서는 보기드문 격주 5일제 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누구의 주장도 아닌 회사측의 주장인 것이다.

“처음에는 결정하기가 좀 어려웠었습니다. 그러나 시행을 거치는 동안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산량도 증가하고 직원들 모두가 만족하는 것 같아요. 사실 시행을 하기까지가 어려워 다른 업체에서는 잠시 생각을 늦추나 봅니다”

陸元均 常務理事의 얘기다.

일하는 것을 즐겁게 자기일 같이 열심히 한다면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成美電子(株)와 같은 모범적 기업이 한마음으로 2000년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나라 전자산업의 앞날에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질 것으로 보였다.

